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 겨울 동화 속으로

## 32. 코펜하겐 시청탑-모던 캄파닐레

아무런 유혈 사태없이 만세 세 번 부르고 평화롭게 이루어진 덴마크 혁명 이야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크리스토퍼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덴마크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작은 나라에서 만족하며 살고 크게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말을 쓰다듬으며 만족한다' 라는 속담까지 있지요. 19세기에 독일과 국경 문제로 싸웠다가 패했을 때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해안선을 메꾸어 국토를 넓히는 것으로 결정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죠. 덴마크인은 농업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에 오셔서 Black Bread(흑빵) 많이 드셨죠?" 크리스토퍼 할아버지는 우리를 둘러보며 갑자기 물었다.

어제 입센 카페에서 아침식사로 먹었던 흑빵 생각이 났다. 구수하고 든든한 빵이었는데. "덴마크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빵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우리가 망해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에게 흑빵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 남을 수 있다' 고 믿습니다. 농업이 위주였던 과거에 흑빵은 덴마크 국민의 영혼이 담긴 음식이었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덴마크 혁명으로부터 덴마크 흑빵으로 흘러갔지만 역시 흥미로운 이야기였고, 토박이 덴마크 할아버지가 직접 들려주니 더 이상 실감날 수가 없었다. 진지하면서도 소박한 덴마크 사람들의 성격까지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자, 이제 탑으로 올라갑시다. 덴마크 혁명이야기를 들으셨으니 탑 위에 올라가 코펜하겐을 내려다보며 그 당시의 덴마크 국민 정서를 느껴 보시고 오늘날의 코펜하겐을 내려다 보실 일만 남았습니다." 크리스토퍼 할아버지는 다시 앞장을 섰다. 전체 계단은 300여 개인데 경건의 계단 등 시청 안의 큰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184개라고 한다. 전시관 후에 나오는 계단은 피렌체의 종탑에 올라가는 느낌을 비슷하게 살렸다. 성큼성큼 몰려가는 건장한 젊은이들을 따라 나도 열심히 올라갔다. 탑으로 올라가기 직전에는 나선형으로 소용돌이를 그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나선형 층계의 마지막 나무계단을 밟고 올라가니 시야가 360도로 트이면서 마침내 탑 꼭대기로 나오게 되었다. 매서운 겨울 바람이 마구 몰아치고 있었다. 우리들은 "아!" 하고 탄성을 지르며 눈앞에 벌어진 코펜하겐 파노라마를 마주했다. 회색 구름이 얕게 떠 있는 파란 겨울 하늘 밑으로 눈 닿는 곳까지 코펜하겐시가 펼쳐져 있었다. 엽서나 잡지에서 보던 코펜하겐의 모습 그대로이다. 현대와 18세기 그리고 19세기가 잘 어우러진 모습, 아무데나 카메라를 들이대도 완벽하게 아름답다.

나는 탑을 빙 돌면서 덴마크 혁명 후 이 탑에 올라와 왕궁 방향을 내려다보던 덴마크 시민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다. 지금도 아주 높은데 그 당시 사람들에겐 얼마나 높은 탑이었을까? 평화롭게 성취한 혁명 덕에 다친 사람도 없었다.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희망에 모두 마음이 부풀어서 아름다운 그들의 코펜하겐을 내려다보았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코펜하겐은 평화롭고 아름답다. 차가운 북해 바람이 불어오는 코펜하겐 시청 탑. 르네상스 시대의 종탑 캄파닐레가 근대 국가가 태동하던 19세기 스타일로 재해석된 듯한 곳. 나는 멀리 코펜하겐 하늘 끝 지평선과 수평선을 바라보며 '모던 캄파닐레' 하고 가만히 속삭여보았다.